CBMC INTERNATIONAL

월요만나
2021. 7. 5

영원한 게임의 선수가 되는 것

<인피니트 게임(The Infinite Game)의 저자인 사이먼 사이넥은 이 책을 통해 비즈니스 세계가 소위 자신이 칭한 '유한한 게임(finite game)'이라는 것을 쫓느라 너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즈니스 리더가 단순히 분기별 즉, 회계연도별 이익만을 추구할 때, 그것은 지속적인 목적이 아닌 유한한 해결책을 뒤쫓는 것일 뿐이라고 그는 적고있다.

사이넥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추구해야할 것은 바로 소위 자신이 칭한 '정당한 명분'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수익보다는 사업의 더 큰 대의명분이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비즈니스 의사결정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경쟁이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조차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증가되는 금전적 수익으로 보상해주는 것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는 이야기한다.

이익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이는 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그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영원한 게임인 '인피니티 게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익만을 뒤쫓는다면, 영원한 상금을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성경에서는 이에 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은 21 세기 일터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원칙들의 예시이다.

1.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편 139 편 14 절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한다.
함축적으로 우리가 일구고 발전시키는 비즈니스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온당하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10)

2. 지침서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을 구매하면 대개 사용자 가이드를 받는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고용되면 보통 직원용 안내서를 받게 된다. 스포츠에 있어서 운동선수는 전술 각본을 받는다. 그리고 살아가고 일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지침서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디모데후서 3:16-17)

3. 가장 큰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어떤 해에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재정적 수익이 창출된다. 만약 가장 좋은 보상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쫓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로새서 3:23-24)

4.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잠깐의 수익과 보상을 찾는데 투자하지만, 그것들은 지금은 있더라도 내일이면 사라진다. 그러고 나면 '이것이 **전부인가**?'라고 질문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잃을 것이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어떤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누가복음 9:25)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거룩하고도 영원한 보상을 추구하면 수익 또한 따라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 및 적용 주제

1. 대부분의 비즈니스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유한한 게임'을 끊임없이 쫓고 있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비즈니스 또는 실업인 및 전문인의 총결산은 수익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까? 왜 동의 혹은 동의하지 않나요?

2. 그 대신에 '끝이 없는 게임' 즉, 영원한 변화를 불러올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러한 관점으로 하루 하루를 시작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3. 이번 월요만나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에 대한 접근법과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일에 개인적으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신앙을 포함한 사생활은 당신이 매일 일터에서 하고 있는 일과는 별개라고 생각하나요?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잠언 12:11, 18:9, 22:29, 27:18; 마태복음 6:19-21,25-33; 고린도전서 3:9

-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잠언 12:11)
-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잠언 18:9)
-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언 22:29)

-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잠언 27:18)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19-21)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25-33)
-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린도전서 3:9)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실업인회 www.cbmc.or.kr